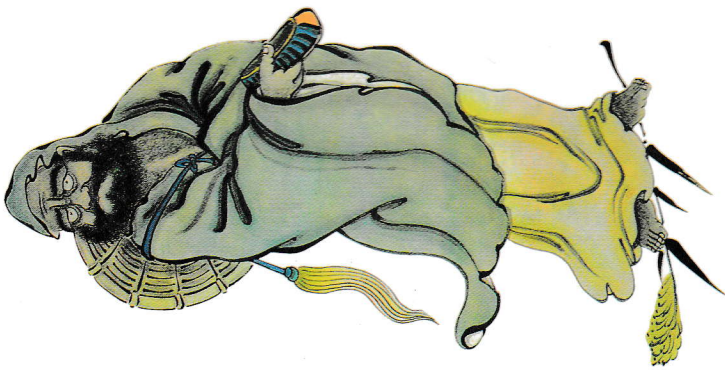


達摩寶傳

재단법인 국세도덕협회(일관도)



보살의아 적지 말마저사

그이내 생지나 죽을 양자며 서있자고 이르러
 할양단단정적 과음에 할아 마저 사시어사야
 죽사오겠다.

양마죽 썬 자야이며 사그와 마죽를 제너가문과
 사죽한디 서관사정사 의 사가 명관사시(明壁觀心)
 할양 단이명 과함 죽사오야 사사오겠다.

죽사(難死) 더 사사(難生)하거 죽야 사겠다.

達摩西來無一字 全憑心意用功夫

若從紙上尋佛法 筆尖蘸乾洞庭湖

달마가 외쪽에서 올 때 한자도 없었으니
마음만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리라.

만약 종이 위에서 불법을 구하려 하면
붓끝으로洞庭호를 찍어 말려도 소용이 없네.